



# 2024 추석 명절 감사예배

목도 ..... 다함께  
사도신경 .....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함께  
기도 ..... 말은이  
성경봉독 ..... 시편 1:1-6 / 인도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나누기 ..... 인도자  
찬송 .....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함께  
합심기도 ..... 우리 가족 감사와 기도제목 / 다함께  
마침기도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서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어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 "우리 가족 감사와 기도제목"



##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1-6 / 인도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영적 생활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비유에 주목하려 합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비유요,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의 비유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안에는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봄이 되어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름이면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동물들과 사람들을 쉬어가게 해 줍니다. 가을이면 맛있는 열매를 맺어 배고픈 사람들을 먹입니다. 겨울이면 몸집을 줄여 낙엽과 마른가지를 만들어 음식을 지어 먹게 하고 추운 밤을 지나도록 돕습니다.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나누는 일로 인해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의 삶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나'라는 나무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라는 나무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3:8~9절을 보시면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삼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관리인에게 그 나무를 뽑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관리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돌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 관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여 주셨습니다. 친절하신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 존재를 맡기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아 자라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찍어 버림'을 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고보서 2장 1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때가 다 지나기 전에,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맺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심기어저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위 틈에 심기어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있기는 한데 생명력이 약하고, 매일 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급급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두어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생활 하면서 죽고 나서 천국 갈 것을 믿고, 그것에 만족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것으로는 영적 생명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오직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매일 몸부림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분과 하나되어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매일 시간을 성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 사역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영적 생활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영적 생활에 게을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지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착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영영 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첫 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생활에 민감한 사람을 의미하고, 악인,죄인,오만한 자는 영적생활에 둔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생활에 둔감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기자는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영적 감각이 무뎠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시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은 살아서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단풍으로 그리고 낙엽으로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 2024 추석명절

# + 온가족 감사예배

